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읽은 『압록강은 흐른다』

진영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수료

- I. 머리말
- II. 탈식민주의로 엮은 한국 문학
- III.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읽은 『압록강은 흐른다』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연구는 식민주의 배경 아래 있었으나 한국의 식민주의 배경을 벗어나서 창작한 문학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를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근대로 들어선 시기에 식민주의 배경 아래 있던 당대 문인들과는 달리 식민주의 배경의 경험을 이국 공간에서 창작하였기에 식민주의 배경을 식민주의 공간에서 그려낸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탈식민주의 문학에 관하여 논한다면 식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또는 경험한 ‘바로 그 공간’에서 그려낸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하거나 광복 이후에 식민주의 경험을 문학 작품으로 그려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시간의 흐름으로는 ‘그 공간’을 벗어났다고 하나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그려낸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¹⁾

1) 나병철(2001), 송명희(2003), 허윤희(2005), 나병철(2005), 임성규(2008), 민족문학연구소(2006), 임명진·유승·유인실(2012)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미륵(이의경)은 식민주의 시공간의 경험을 이국의 시공간에서 그려낸 대표적인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굴절된 서구화와는 달리 유럽의 중심에 있으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이끌던 독일이라는 공간에서 한 조선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 인간의 이야기로 독자에게 심금을 울렸다. 여기서 한 인간은 식민주의 담론의 ‘타자’가 아닌 ‘자아’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 인간이다. 침략을 주도하던 주국인 독일이라는 공간에서 창작한 이미륵의 문학은 침략을 당한 시공간에서 문학을 창작한 문인들의 작품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식인이 서구화를 경험하는 것은 일본을 거친 것이기에 ‘번역된 서구’를 경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대에 손에 닿는 제국, 갈 수 있는 제국이라고 하면 일본이었기에 유럽이나 미국은 손에 닿지 않는 먼 공간이면서 일본의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유럽이나 미국은 모든 것에 앞서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서구라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상적인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공간에서 쓰는 글과 ‘굴절된 공간’ 혹은 ‘번역된 공간’에서 쓰는 글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지식인의 주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읽기 방식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관점과 시각을 키우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미륵의 작품을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읽어낸 연구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탈식민주의 관점에 가장 근접하여 연구하고 있는 논의의 든다면 임선애(2012)인데 이 논의에서는 서양을 주체 또는 자아로 인식하고 동양을 타자로 인식하는 방식에 따른 오리엔탈리즘의 반대격인 옥시덴탈리즘의 관점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탈식민주의 독법을 제시하는 관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선애(2012)에서는 “〈압록강은 흐른다〉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는 당대의 흐름인 서구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서양에 대한 사유와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옥시덴탈리즘이 어떤 양상으로 작동하는가를 밝힐 것이다.”고 논

하며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작중 인물이 보는 서구화는 작가의 관점을 반영하기도 하고 당대의 의식을 반영하기도 하는 작가의 여러 관점과 의도가 반영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이미륵이 식민주의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를 작품으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에 주 목적을 두고 살펴려 한다. 또한 동양과 서양을 대립각에 두고 연구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탈식민주의에 관하여 논의하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있었으면서도 지리적으로 그 지배 체제 공간을 벗어난 이국 공간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시공간적 지배 공간에 있기 전의 조선의 이야기와 시공간적 지배 공간에 놓인 조선에서 겪은 경험을 생각하며 쓴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의 후속 작품의 초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다고 한다. 제1부는 “한국에서의 유년(Jugend in Korea)”, 제2부는 “서양과의 만남(Begegnung mit dem Westen)”, 제3부는 “서양과 서양(Westen mit Westen)”으로 구상되어 있었으나, 이미륵의 후속 원고는 사라져 버렸는데 이는 영원한 미스테리라고 정규화는 살리의 진술에 따라 말하고 있다(정규화·박균, 2010: 208-209). 그러나 정규화는 이미륵이 남긴 글을 모아 유고집으로 『무던이』(1974),²⁾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1977), 『Der andere Dialekt(이상한 사투리)』(1984)³⁾를 낸다. 이 가운데 이미륵이 살아있을 때 출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평화로운 한반도 조선에서부터 먼 이국 땅으로 망명을 해야만 했던 미륵의 이야기로 일제의 지배를 경험한 이미륵의 의식을 그려내고 있기에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식민 지배 체제의 시공간적 상황에 있었던 당대 지식인과는 어떤

2) 이 책은 초판 이후 『이야기』로도 발간되는데 『무던이』와 『이야기』는 책 제목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다.

3) 이 책은 한국어판으로 발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무던이』나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에 실린 작품과는 달리 이미륵이 남긴 편지, 논문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친일 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국어 교육에서 삭제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리적 공간과 창작 공간이 같은 한국에서 친일 문학이 활개를 치던 때에 식민지 공간을 벗어난 이국에서 한국을 말하는 내용은 친일 문학이 말하는 내용과는 다른 면모를 학습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압록강은 흐른다』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탈식민주의로 엿본 한국 문학

탈식민주의는 ‘영연방 문학’과 ‘식민주의 담론 이론’을 벗어나서 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탈식민 담론은 두 개의 다른 영토 간의 ‘틈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영문학에서 주류 담론인 탈식민주의 이론과 제3세계의 반식민주의 전통을 아울러 말하고 있는 것(나병철, 2005: 11)으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이나 호미 바바(Homi Bhabha),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같은 제3세계⁴⁾ 출신자가 대표적인 이론가(나병철, 2005: 12)라고 보고 이는 대부분의 시각이기도 하다.

Mcleod(2000/2003)에서는 탈식민주의가 스피박, 바바, 사이드의 특권

-
- 4) 여기서 ‘제3세계’라는 말 자체에도 이미 자아와 타자라는 제국주의의 시각이 반영된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문학 비평 이론 용어에서는 여전히 탈식민을 피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탈식민에 대해서는 타이슨(Tyson, 2006/2016: 861)에서 “탈식민(postcolonial)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식민지 지배가 종식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문학 용어에서는 여전히 식민주의의 시각이 담긴 용어를 쓰고 있어 식민 지배가 종식되었다고 해서 “더 발달된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까지 저절로 종식되지 않는다”는다고 하는 로이스 타이슨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 지위를 지닌 저서에 이론적으로 몰두하고 있다고 보며, 새로운 이론적 통찰의 관점에 따른 탈식민지 문학 읽기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바트 무어-길버트(Moore-Gilbert, 1997/2001),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Childs & Williams, 1997/2004)에서 스피박, 바바, 사이드의 관점에 따른 이론이 그 중심에 있다.

McLeod(2000/2003: 55)에서는 Moore-Gilbert(1997/2001))이 탈식민주의 이론에 관한 가장 알차고 풍부한 연구 작업이라 보고 있는데, Moore-Gilbert(1997/2001: 37)에서는 탈식민주의 이론을 프랑스 ‘고급 이론’⁵⁾의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는 사이드, 스피박, 바바의 저작을 뜻한다고 보고, Young(1995/2013)에서는 이 세 사람을 탈식민주의 이론가의 ‘성삼위’로 ‘격찬’⁶⁾하고, McLeod(2000/2003)에서도 역시 로버트 영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사이드, 스피박, 바바의 ‘성삼위일체’가 탈식민주의에서 많은 논평과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고 탈식민주의 이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논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탈식민주의 비평을 문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Tyson(2006/2016: 859)에서는 탈식민주의 비평에 관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 곧 심리학적,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정치적, 지적, 미적 차원의 영역들 사이에 깃든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탈식민주의 이론을 잘 활용하면 인간 억압을 다루는 모든 비평 이론 사이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고 말한다.

탈식민주의 문학은 하나의 공통된 과제를 지니고 있는데 식민 통치라는 억압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한 응구기와 씨옹오(Ngugi wa Thiong'o), 위올 소잉카(Wole Soyinka), 부치 에메치타(Buchi Emecheta) 같은 아프리카 작가들이 시도한 작업이 그 예(이석구, 1997: 122)라 보는데, 이 억압의 역사를

5) 데리다, 라캉, 푸코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6) 무어-길버트의 시각이다.

식민지 시공간에 있었던 한국의 문인이 그려낸 작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친일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이다. 친일은 텍스트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며 텍스트가 식민주주의의 악영향을 드러내는 것은 저항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성성과 양가성은 두 영토로 대변되는 두 국가 사이의 ‘사이 공간’에서 일구어낸 글쓰기이기에 이러한 문학을 비판만 할 수 없는, 당대인의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글쓰기에서 비롯되는 담론으로 볼 수 있다.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황국신민화를 내걸던 일제의 강압에 따라 혼성성과 양가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화와 같은 카프(KAPF)⁷⁾ 계열의 담론도 더욱 뚜렷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임화의 카프 이론에 관하여 ‘일본 맑스주의자들의 이론을 모방하고 이를 조선의 현실 속에서 기계적으로 이식하고 공식화하여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논의(서준섭, 2005)도 있으나 일본의 나프(NAPF)⁸⁾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어도 이를 일본 제국주의 나라 안에서 지식인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배 계급을 제국주의 일본을 대상으로 보면서 지배 계급인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혁명 자체가 일제의 억압에서 독립하는 것과 직결된 전략적인 운동이었다. 곧 나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인식하고 전개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라 전략 자체는 일본의 지배 담론을 비판하고 부수고자 하는 더 저항적인 담론으로 펼쳐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 기간이 길어질수록 억압은 심화되었고, 친일을 하지 않으면 절필로 저항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제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이 식민지 공간을 떠나서 쓴 글은

7)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8) 전일본무산자예술동맹(Nippona Artista Proleta Federacio)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을 든다면 『압록강은 흐른다』가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 될 수 있다. 한 작가의 유년 시절을 아울러 조선을 떠나서 독일에 머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어린 아이에서 청년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조선이라는 공간 안에서 조선을 일본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압도되는 공간과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Bhabha(1994/2012)에서는 식민지 담론의 중요한 특징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타자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착성(fixity)’의 개념에 의존하고 고착성의 주요한 담론의 전략인 정형화(stereotype)는 이미 알려진 ‘제자리’에 있는 것과 불안하게 반복되어야 하는 어떤 것 사이에서 동요하는 인식과 정체성 구성의 형식인데 이를 ‘양가성’으로 논한다. 또한 식민자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향과 세계의 재배치’가 일어나기에 여기에서 ‘초영토적이고 문화혼혈적인 것을 창시하는 조건을 만드는 이질적인 감각’⁹⁾이 생겨난다고 본다. 『압록강은 흐른다』를 이러한 양가성의 측면에서 식민주의 담론에서 설정한 ‘타자(the other)’, ‘모방(mimicry)’에 대한 관점과 ‘고향을 떠난 듯한 낯선(unhomely) 삶’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III.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읽은 『압록강은 흐른다』

1. 타자와 모방의 문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식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침략한 지역의 토착민보다 우월하다는 전제에 따라 타자를 설정한다. Tyson(2006/2016:

9) Bhabha(1994/2012: 43)에서는 ‘고향을 떠난 듯한 낯설’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864-866)에서는 ‘타자화는 세계를 ‘우리(문명인)’와 ‘그들(타자들 또는 야만인)’로 나누고 이 야만인은 타자의 자리에 머무르며 온전한 인간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Tyson(2012: 866)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양은 서양의 발명품’이라는 표현도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침략자는 오히려 계도자라는 관점이 되는 것이며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때 침략자는 이 긍정의 자리에 앉게 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그 어떤 침략도 정당화할 수 있는 행위를 동반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미륵의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에서는 주체가 되는 자아가 누구인지 타자가 누구인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며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륵은 비록 작품을 쓰는 매개가 되는 문자는 독일어를 반영한 독일 문자를 쓰고 있지만 그 문자가 이루어낸 이야기는 모두 조선의 이야기이며 작가가 조선 사람으로서 체득한 경험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독일 땅에 거주하고 있으나 조선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바탕을 둔 글쓰기를 하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압록강은 흐른다』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다.

「미악!」

그는 언제나 나에게 색다른 일을 알려려드는 때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렀다.
그는 <ㄹ>과 <으>를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불렀다.

(Li, 1946/1967)

미륵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자음 ‘ㄹ’과 모음 ‘으’를 발음하지 못하여 ‘미륵’이 아닌 ‘미악’이라고 부른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음소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최초의 독자인 작가 자신을 위한 설명이라거나 한국의 독자를 위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륵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는 독일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문자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설명을 다음 두 번역자의 번역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누나가 읽는 책은 어려운 한자로 쓰여 있는 책이 아니고, 약 스무 자 가량으로 이루어진 알기 쉬운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이었다. 한글에서 낱낱의 글자는 ‘하늘’, ‘땅’, ‘해’와 같은 단어가 아니고, ‘아’, ‘오’, ‘에’, ‘가’, ‘나’처럼 낱글자라고 셋째 누나가 나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누나는 아주 일찍부터 유모에게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한글로 쓰여 있는 소설을 읽을 수가 있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다른 여자들도 그런 소설을 읽곤 했다.

(Li, 1950/2008)

누나가 읽는 책들은 어려운 한자로 쓰인 책들이 아니고, 스물 남짓한 닿소리와 홀소리로 이루어진 알기 쉬운 한글로 쓰인 것들이었다. 한글은 낱낱의 글자가 ‘천’이나 ‘지’, ‘일’이나 ‘월’로 발음되지 않고, 그저 ‘ㄱ’나 ‘ㄴ’, ‘ㄷ’ 또는 ‘ㄱ’이나 ‘ㄴ’으로 읽는다고 셋째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Li, 1946/2009)

위에서 밑줄 친 정규화 번역과 이용옥 번역이 자세히 보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독일어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Da hießen die einzelnen Zeichen nicht “Himmel” oder “Erde”, “Sonne” oder “Mond”, sondern “A” oder “O”, “E” oder “K” oder “N”, wie mir Setje nacheinander erklärte.

위에 쓴 원문(Mirok Li, 1950: 24-25)에 따르면 ‘하늘’ 또는 ‘땅’, ‘해’ 또는 ‘달’이 아니라 ‘ㄱ’ 또는 ‘ㄴ’, ‘ㄷ’ 또는 ‘ㄱ’ 또는 ‘ㄴ’이라고 셋째가 설명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글을 소개하면서 단어의 기본이 되는 음소를 반영한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독일 알파벳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셋째’ 누나를 ‘Setje’로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 말의 발음을 살

려서 독일 문자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한글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셋째 누나는 유모에게서 배웠고 유모도 이런 방식으로 배웠을 것이란 것을 추론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때는 미륵의 성장 시기로 보면 1906년이 못 된 때로 한국 여성의 문해력에 대한 진술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배우는 것도 아니며 유모에게 배워서 안다는 것이다. 이는 아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과 주체적으로 글을 터득하려는 태도를 지닌 한국의 문화를 보여 주기도 하는 부분이다.

이미륵은 독자를 독일인으로만 상정하지는 않는다. 그가 독자로 생각하는 대상은 유럽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인을 대상으로 쓰는 그의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 놀이는 제기차기였다. 제기는 배드민턴공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제기를 구멍난 엽전과 얇고 투명한 박엽지(薄葉紙)로 만들었다. 제기는 한 발로 높이 차올린 다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얼른 발을 대고 다시 높이 차야 한다. 땅바닥에 제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많이 차는 사람이 이겼다.

(Li, 1946/2009)

전혜린 번역에서는 없으나 정규화와 이옥용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독일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놀이 중 배드민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보충해 주는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원문에도 “Das Spiel, das die Knaben am meisten spielten nannten wir Zhegi, eine Art Federball.”(Mirok Li, 1950: 19)이라고 말하고 있어 제기를 배드민턴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면 이미륵이 이러한 설명을 덧붙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놀이는 유럽 또는 독일에서 하는 어떤 놀이와 같다 하는 방식의 설명이다. 이

는 조선이라는 땅의 놀이를 독일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 되며, 유럽에는 유럽의 놀이가 있듯 조선에는 조선의 놀이가 있음을 알려 준다.

“당신도 읽으면 알게 되겠지만 나의 소설은 내가 소년 시절에 체험한 일들을 소박하게 그려 보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체험들을 서술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기술적이고 설명투의 묘사를 피했습니다.”

(Li, 2008: 192)

하고 작품 발간 2년 전에 펴낸 출판사에 작품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사장에게 서면으로 설명한 이미륵의 글에 따르면 되도록 설명하려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기’를 ‘배드민턴’과 비슷한 놀이로 설명하는 것은 ‘타자’에게 ‘자아’의 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를 향한 이러한 설명은 표면적인 것이지만 실상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다.

신식 학교를 다니던 때에 고을 목사가 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일본에 문자와 철학, 종교와 건축, 그 밖에 많은 것을 전해 준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일본보다 조금 뒤지기는 했으나,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우리의 사기를 올려 주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진 밤이었다.

(Li, 1950/2008)

식민주의 담론에 따르면 피식민지인은 ‘타자’로 ‘미개’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곧 문명인인 ‘우리(자아, 식민지인)’가 미개한 ‘너희(타자, 피식민지인)’를 문명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이는 침략 담론이다. 식민지국이 ‘자아’로

서 ‘문명국’임을 주장하지만 미록은 식민지국인 일본에 문자,¹⁰⁾ 철학, 종교와 건축, 그밖에 많은 것을 전해준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지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일본보다 늦었을 뿐 “우리가 일본보다 약간 늦었을 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될 것은 없”(Mirok Li, 2017: 123)는데 그 까닭은 “우리는 정말 현명하기 때문”(Mirok Li, 2017: 123)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의학 전문학교를 다니던 때에 3.1 운동에 가담하기 전 남운 식당에서 시위 준비를 하는 학생들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에도 들려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또 일본놈은 벼락 출세한 일간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발명한 인쇄 활자며 거북선, 도자기, 한지, 기타 우리 조상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견했던 여러 가지 발명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¹¹⁾

(Li, 1950/2008)

10) 이 문자를 한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석독구결로도 생각할 수 있는 바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어사개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기문(1961)부터 이기문(1967)까지는 구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기문(1977)에 구결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으나, 이기문(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에 이르러서야 구결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66-67쪽에 제시하고 있다.

“日本の 漢文 讀法과 文字에 言及할 필요를 느낀다. 종래 日本의 漢文 讀法은 日本人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이것이 신라의 석독구결을 본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신라에 유학한 승려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이런 讀法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구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극단적인 略體字들이다. 이것은 필시 비좁은 行間에 적어 넣기 위하여 만들게 된 것으로, 신라인들의 文字 改革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의 假名 文字(특히 片假名)는 우리 나라 구결의 약체자와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한 약체자가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따로따로 생겨났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신라 시대의 약체자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최종적인 결론은 삼갈 수밖에 없다.”

11) “Danach sprach man lange Zeit von unserer alten Kultur und von den Kulturellen Errungenschaften unserer Ahnen, und daß die Japaner nichts als Emporkömmlinge seien. Man sprach von der ersten Druckerei mit beweglichen Lettern, von einer Unterseeboot, von der Porzellankunst, von einer besonderen Papiersorte and vielen anderen Dingen, die unsere Ahnen vor allen anderen in der Welt erfunden hatten.”(Mirok Li, 1950: 171).

우리나라는 일본에 문자, 철학, 종교, 건축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움직이는 활자’ 또는 ‘이동형 프린터’(Druckerei mit beweglichen Lettern)라고 묘사한 인쇄 활자를 발명했다는 것과 거북선이나 도자기, 한지 같은 것을 발명한 빛나는 문화유산을 세계 최초로 발명하여 지닌 나라라는 것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인 독자를 비롯하여 유럽 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쇄 활자, 거북선, 도자기, 한지 이 모두가 우리나라의 뛰어난 발명품이지만 인쇄술 하나만 들어 말한다 하더라도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아직도 최초의 인쇄 활자 발명을 구텐베르크¹²⁾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¹³⁾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권십일(後集卷十一)에는 “新印詳定禮文跋尾”라는 기록이 있고, 이는 1234년에 《상정예문(詳定禮文)》이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다는 기록¹⁴⁾이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실존하는 자료는 1377년에 금속 활자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¹⁵⁾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코드(Dancing with Jikji)』(우광훈·데이빗 레드먼, 2017)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도 한데 로마 바티칸 비밀문서고에서 1333년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 왕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의 필사본에 고려 왕에게 ‘우리

12)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다고 하는 인쇄술에 따른 성경은 1450년 무렵에 발간된 것으로 보고 있다.

13) 독일 마인츠에 있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아직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http://www.gutenberg-museum.de>).

14) “새로 편찬한 상정례문(詳定禮文)에 대한 발미(跋尾)”로 풀어 쓴 경우(민족문화추진회(1979), 민족문화추진회(2006)와 “금속활자로 인쇄한 《상정예문》을 보내노라[新序詳定禮文跋尾]”로 쓴 경우(이규보(저)/김상훈·류희정(역), 2005)가 있는데 오늘날은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실존하지 않으나 기록에 따른 최초의 금속 인쇄본으로 보고 있다.

15) 『직지심체요절』은 박병선 박사가 1972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먼지가 가득한 서고에서 발견하여 국제 도서 전시회에 소개하였고, 이후 국내로 환송하려 했으나 이는 실패하고 말았다.

사제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에 대해 말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다'는 뜻의 글이란 설명도 나온다. 이는 이미 유럽과 고려가 왕래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이러한 왕래에 따라 우리 인쇄술에 대해 알게 되어 70여 년 이후 1450년 무렵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오게 되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준다.

1972년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하고 이후 이를 소개하던 때와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던 때에 앞서 이미 이미룩은 우리나라의 인쇄술에 대해 누구보다 앞서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식민주의 담론에서 말하는 '타자'는 이런 문명을 이룩할 재간이 없다. 미개하고 열등하기 때문이다. 또한 탈식민주의 담론에서는 모방의 양가성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룩은 두 문화권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아를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피식민지국이 얼마나 그 자체로서 '자아'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명국으로 논지를 펴고자 하는 식민지국이야말로 문화를 약탈해 가는 도적이라고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여러 대목에서 한국만의 소중한 자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우월하고, 타자는 열등하다는 설정을 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로 얼룩진 시대에 무덤을 파헤치고 문화유산을 약탈해 가고, 사람을 물건인 듯 약탈해 가는 것이야말로 미개인, 야만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미룩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 써 줌으로써 한국이 자아라면 일본이 타자이고, 독일이 타자이며, 식민국은 타자가 아닌 그 나름대로 자아이고, 제국주의 나라들이 바로 타자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식민주의자들과 반대 개념인 식민주체¹⁶⁾는 식민통치자들의 모든 것을

16) Tyson(2006/2016: 867)에서는 “영국은 우월하지만 자국은 열등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감히 식민지 지배에 저항할 엄두를 못 낼 만큼 식민화로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킨다.”로 정

모방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고 탈식민주의에서는 여기서에서 양가성이 드러나는 것에 주목한다. Bhabha(1994/2012: 197-198)에서는 모방 담론은 ‘양가성’을 둘러싸고 구성되며, 모방은 끊임없이 미끄러짐, 초과, 차이를 생산해야 하고, 식민담론의 권위에 미치는 모방의 효과는 심화와 방해의 이중성을 지닌다고 말하는데 Childs & Williams(1997/2004: 268)에서는 이 양가성은 식민 담론의 또 다른 양식인 흉내(mimicry)¹⁷⁾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위기 신호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전이의 굴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곧 두 가지 사이에 낀 새로운 것 하나를 연상하게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미륵은 분열하는 자아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두 문명권 사이에서 요동하는 새로운 모습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한 조선 사람임을 그려냄으로써 식민주의를 정당화하지 않고, 한 나라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 문명을 지니고 있는지,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침략자가 이것을 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고향이 아닌 듯한 낯섦의 문제

Bhabha(1994/2012: 43-44)에서는 고향과 세계를 재배치해서 초영토적이고 문화혼혈적인 것을 창시하는 조건을 만드는 이질적인 감각을 ‘고향을 떠난 듯한 낯섦’이라 하는데 이는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사회적 삶을 사적, 공적 영역으로 분리하는 개념에 순응하는 것도 아니라 한다. 탈식민주의에서는 호미 바바가 제시한 ‘이중의식’이나 ‘고향이 아닌 듯한 낯섦’과 같은 개념을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와 정신적 난민(Bhabha, 1994/2012; Tyson, 2006/2016)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공포의 상태’(Bhabha,

의하고 있다.

17) ‘모방’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1994/2012: 43)라고 표현하는 것을 ‘정신적 난민’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제로 이미룩은 실존하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으로서 고향이 아닌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때에 작품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미룩이 작품을 쓰는 시공간은 경험을 한 시공간과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실존하는 고향이 아닌 곳에서 어떤 의식의 흐름과 태도를 보여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곳에 ‘유럽’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데, 아버지는 미룩을 신식 학교에 보내고 난 뒤 자주 무엇을 배웠는지 들으면서 유럽에 대한 이야기도 듣는다. 아들을 가르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우는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아버지는 유럽을 만난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유럽에는 다른 미개국에서와 같은 그런 주인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Li, 1950/2008)

이 말은 미룩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그것 봐라. 유럽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람이야.” 하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유럽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인가? 유럽에서 이 식민주의로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반어격의 말은 아닌지 이 말이 유럽 사람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은 미룩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 안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배가 정박할 때에도 각 나라를 둘러 보는 소감을 말할 때에도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우월을 따져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룩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입으로 말한 것으로 보자면 진정 미개한 민족, 미개한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과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

는 대목이다.

『압록강은 흐른다』에는 일제의 침략이 이르기 전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이웃 간에 정답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도 같은 동네 사람 또는 한 집안 식구인 것처럼 다정하게 인사하며 지내는 정다운 풍경을 그리다가 시간이 점차 흐르는 가운데 식민지 아래에서 ‘게다’ 소리가 동네 길거리에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무덤이 파헤쳐지고,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게다’ 소리는 더 많이 들리게 되고, 미륵은 의학 전문 학교로 진학을 할 때에 일본인이 쏘는 총소리도 자주 듣게 되는, 일제의 침략이 점점 심화되어 갈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큰길 가에 있는 좋은 집들은 거의 일본 사람들의 소유였다. 그들이 신고 다니는 ‘게다’ 소리가 도처에서 시끄럽게 들렸다.

(Li, 1950/2008)

점점 많은 일본인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미륵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제 가뭄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모두들 일본인들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많은 성벽을 부수고, 소중한 역사적 건물들을 철거하고, 오래 된 묘들을 마구 파헤쳤다. 묘를 파헤친 것은 악질적인 행위였다.

일본인은 묘 안에 죽은 사람에게 바친 고귀한 도자기를 마구 훔쳐 냈다. 그들은 도자기를 동경에 가지고 가서 비싼 값으로 판다고 했다. 수많은 묘가 파헤쳐져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 산이 없었다. 오래 된 해골이 띄약별 아래 여기저기에 흩어져 뒹굴었다. 도로 건축을 한다며 이 야만족들은 낡은 옛날 묘소를 파헤치고 손상시켰다. 산허리를 지나가다 사람의 뼈나 해골이 굴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여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늘이 그런 비행을 범하는 그들을

벌하리라는 걸 나도 믿었다.

(Li, 1950/2008)

미륵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알리면서 일본이 저지르는 일 중 죽은 자를 묻은 무덤을 마구 파헤친 악행과 무덤에 고인과 같이 묻어 둔 유물을 다 꺼내 훔쳐 일본으로 가져 가서 파는 악행을 고발하면서 이 악행에 대해 하늘은 벌하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신념을 드러내며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어느 ‘틈새’에 끼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 버리고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리를 상실한 채 내뱉는 말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를 인지하고 함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세계에는 여섯 개의 문화국이 있대.”

언젠가 용마가 말했다.

“그것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래. 물론 사람들은 일본이 남의 나라 흉내를 내어 간신히 꼬리에 붙게 되었다고 하더군.”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놀라서 물었다.

“우린 문화국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

그가 낙담하며 말했다.

“우린 전차도 얼마 없는걸.”

“그럼 중국은?”

내가 또 물었다.

“중국 사람들은 너무 구식이야.”

(Li, 1950/2017)

여기에서 우리는 전차도 얼마 없어 문화국이 되려면 멀었다는 용마의

말로 문화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구식이라는 말까지 한다. 이에 미륵은 ‘구식’이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다는 말로 시작해서 좀 더 앞선 기술을 갖추고 있는 나라만이 문화국인가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듯 ‘중국은 자신에겐 아름답고, 온유하고, 고상한 무엇이기 때문’에 구식이라는 표현이 중국에 맞지 않다고 보며 ‘양자강’, ‘동정호’, ‘서주’, ‘황주’, ‘소동파’, ‘도연명’이란 말만 생각해도 중국은 아름답고, 온유하고, 고상한 무엇이라고 말한다. 이걸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셋째 누이’와 ‘어진이 누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자기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님을 강조한다.

용마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구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신식에서 볼 때 낡아빠진 구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자체로 우리일 수 없고, 우리 그대로 우리일 수 없는’ 의식을 드러낼 때, 미륵은 중국 자체로 그 얼마나 중국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들려준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 ‘우리 자체로 우리이고, 우리 그대로 얼마나 우리다운지’를 그려낸다. 그 나라의 그 문화 자체를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시장에 갔을 때의 일도 그러하다. 유럽풍의 음악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게 되고 야시장의 가장 끄트머리 가판대에서 피리를 파는 것을 보게 된다. 중심에 있었던 우리 고전 음악이 가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상인이 다가와서 미륵에게 피리를 건네며 타령을 같이 연주하자고 한다. 미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것은 전통 국악 양성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연주할 수 있었던 인기 있는 고전 악곡이었다.

(Li, 1950/2017)

미륵은 이 타령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문화를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천천히 피리를 입에 갖다댔다. 그리고 비단옷을 입고 있는 그 노인과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주변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 노악사가 이리저리 걸으면서 점점 더 제 흥에 겨워 연거푸 곡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Li, 1950/2017)

우리 문화를 알고 빠져드는 것은 미륵만이 아니다. 조선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우리 것에 대해 빠져든 것이다. 일제와 함께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 그 문화가 중심에 자리잡고 우리 문화가 끄트머리에 자리하게 되었어도 미륵은 우리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둘러 있는 사람이 흠뻑 빠져 움직이지도 못하게 우리 민족을 하나되게 하는 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의학 전문학교로 진학하려고 시험을 치르려면 고대 일본어와 고전 한문의 원전을 현대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고, 수학, 물리와 화학까지 시험을 쳐야 했다. 한글로 시험을 칠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하면서,

“네가 우리 나라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까지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동포라고 말할 때에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 내에 있는 전 국민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Li, 1950/2008)

하는 시험 감독관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미륵은 이에 대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항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학교생활을 계속 하던 중 미륵은 친구들이 데려간 남운 식당에서 시위 준비를 하고 파고다 공원에서 3.1 운동이 있었다는 것과 낭독문을 읽고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선전물을 날리고 행진을 했으나 이에 일본이 군중을 향해

총검으로 겨냥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나도 선전문을 한 장 받아서 읽었다. 일본에 의한 한국 민족의 합병은 부당하며, 이것은 앞으로 효력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로운 민족으로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 그 권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선언서를 몇 번이나 되풀이 하여 읽고, 행진 대열에 참가했다.

공원의 입구에서 누군가가 한 몽치의 선전물을 내 손에 안겨 주고는 명령하듯 이 짧게 소리쳤다.

“뿌려라!”

(Li, 1950/2008)

이 경험은 결국 이미륵이 망명을 해야만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일본의 침입에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려고 이에 대해 낭독문을 읽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것으로 사람들과 미륵의 친구들은 감옥으로 갔고, 미륵도 수배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만다. 그러나 이 일이 미륵에게만 미친 일은 아니다. 그가 아끼는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나온다.

이 민족 봉기는 그 동안 바람처럼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그리고 장터와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다. 고향에서는 기슭이와 만수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대학생들과 중학생들 다음에는 상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끝으로 한국인 관리들까지도 이 시위 운동에 참여했다.

총독부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계속 일본 군대의 파견을 요청했다. 군대는 십년 전 우리 나라가 합병된 때와 같이 낮이고 밤이고 행군했다.

도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어느 마을은 이미 천주만이 교회에 갇힌 채 그냥 방화되어 산 채로 타 죽었다. 넓은 감옥과 유치장이 확장되고, 새 건물이 계속 건축되었다. 경찰들은 밤이나 낮이나 고문을 계속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네 번째 시위를 마지막으로, 지하로 잠복하여 비밀

행동에 들어갔다.

나는 선전물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다.

(Li, 1950/2008)

대학생과 중학생으로 시작하여 독립 운동 시위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어린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일본에 군인을 더 요청하는 모습까지 당시의 모습을 일러 준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한 마을의 기독교인을 교회에 가두고 모두 불살라 죽이는 모습까지도 고발하며 다 알리고 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서술하면서 미륵은 ‘선전물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¹⁸⁾ 총독을 해임하고 사이토 마코토(齊藤實)¹⁹⁾ 해군 제독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도 알려 주고 있다.

결국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중형에 처해지고 미륵도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야만 하게 됐다. 여기에서 보면 3.1 운동에 가담하게 된 이미륵의 실제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일제 침략을 겪고 있는 현실 속의 조선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 준다. 이러한 작품이 독일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전쟁으로 황폐가 된 독일인들의 마음에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조동일, 2008) 기제로 작용한 점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은 식민지를 겪은 민족인이 제국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던진 화두가 가장 명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변하는 일로 볼 수 있다.

미륵은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일제의 감시 아래 쫓기는 몸이 되었다. 살아남으려면 조국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토록 금지옥엽으로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도망쳐야만 한다고 한다. 어머니의 이 절절한 사랑을 떠나야만 하는 작가의 체험이 담긴 이 이야기는 일본과 다르

18) 제2대 조선총독으로 1916년부터 1919년까지 재임했다.

19) 2차례의 조선총독을 지냈다. 제3대는 1919년부터 1927년까지이고, 그 다음은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이다.

지 않은 제국주의 독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결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날 아침, 나는 먼 고향에서 전해 온 소식을 받았다. 큰 누님이 쓴 편지였다. 지난 가을에 어머니가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연이었다.

(Li, 1950/2008)

미륵이 한국을 떠나고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이 마지막 서술로 이야기는 끝난다.

수많은 사람이 고문과 총검으로 죽어간 때에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유럽으로 갔을지 못 갔을지 밤낮 없이 걱정으로 보내다 결국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돌아가셨을 터이다. 미륵이 독일에서 이웃 집의 ‘파리’를 보고 고향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소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륵은 독일이라는 공간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 주는 작가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독일 사람에게 한국의 이야기, 한국 사람인 이미륵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는 것이다. ‘파리’는 고국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가 될 뿐만 아니라 ‘파리’는 한국과 독일을 잇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한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사람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면 거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거기에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과 존중,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쓰는 공간과 이야기를 들려 주는 이 이중의 시공간이 만나는 지점도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되고 공간은 독일이지만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으로 시간은 다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게 된다.

또한 이미륵의 관점은 그의 지리적 공간이 고향이 아닌 듯한 낯선 공간 일지라도 그의 의식이 숨쉬는 세계는 한국인이라는 뚜렷한 표상을 제시함으로써 이 개념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데, 피식민지인이었다고 해서, 망명을

해야만 했다고 해서, 정신적 난민으로 어떤 가치에 대해 방황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미륵은 한결같이 한 나라가 그 자체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중국은 내게 아름답고 온유하고 고상한 무엇’이라고 하며 자신의 나라가 아니지만 중국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이미륵은 독일이라는 공간과 시간에서 조선이라는 공간과 시간의 이야기를 전개함에 조선과 일본, 독일의 문화 사이에 끼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아닌, 어디에 있더라도 조선 사람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륵’을 내세워 인간의 보편타당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려내어 세계인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흔들림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IV. 맺음말

우리나라 근대 문인들이 그러했듯이 이미륵 역시 여기 독일이라는 공간과 히틀러가 지배하는 체제의 독일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지는 못했다. 그의 글이든 누구의 글이든 출판물 검열은 일제 침략 아래 있던 조선의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때문에 그의 글에서도 ‘모든 기술적인 표현들을 피하고 어떠한 사건들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정규화·박군, 2010: 208)했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이미륵의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방식을 결코 피해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지 땅을 벗어난 이미륵의 글쓰기는 온전한 “저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이미륵의 조국 조선은 결코 타자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미륵을 이미륵답게 하는 자아이며 영원한 조국이고 심연의 고향이다. 독일은 이미륵

의 몸이 거하여 글을 쓰는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배경이지만 이미륵의 심연과 사유가 거하는 공간은 조선이다. 이 조선을 독일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매개는 조선어가 아닌 독일 문자였던 것이지만 이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세계는 조선인 것이다.

또한 이미륵이 겪어서 먼 이국 땅으로 와야만 했던 배경은 그가 누린 평화롭고 즐겁고 다정다감한 집안의 사랑과 마을의 사랑이 가득한 배경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3.1 운동에 가담함으로 일제에 쫓기는 몸이 된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배경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양분립하지 않고 함께 녹여내는 과정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제시를 하면서 그의 언어 배치를 마치 기억의 배치로 구성하듯이 제시하여 식민지 환경 이전부터 시작하여 신민지 환경에 이르는 때까지 보여줌으로써 두 공간이 대비되게 한다. 이에서 식민지가 되는 땅에서 겪는 시민의 공포감과 제국주의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대비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압록강은 흐른다』에서는 조선의 침략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유럽 사람에 대해 칭찬을 과하게 하는 태도도 나타나는데, 한 예로, 유럽 사람들을 자연과 우주에 관하여 연구했고, 지혜의 길만 추구한 사람으로 보며 교양인이 되려면 유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Mirok Li, 1950: 50)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출판의 검열을 의식한 이미륵의 의도적인 표현일 수 있으면서도, 교양인다움을 다시 세우라고 일깨우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륵이 아부하듯 표현한 것은 아니다. 어느 민족이든 그들의 좋은 점은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 강제로 들어와서 악랄하게 지배하고자 한 일본에 대해서는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 들여 문명국으로 간주하는 당대의 평가를 논하면서도 일본이 한국에 침범하여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는 하늘이 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이미륵의 이야기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대와 시대를 아울러 사람이 본질적으

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대의 시공간의 이야기를 다른 시공간에서 이미륵의 언어로 재현하면서 말하는 기사이면서 소설이고 이미륵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압록강은 흐른다』에서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읽었을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측면에서, 문화유산을 약탈해 가고 그 나라들을 물건인 것처럼 약탈해 가는 것이 문명인이고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자아’이고 지배를 받는 민족이 열등한 ‘타자’가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선이 그 스스로 얼마나 ‘자아’인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가성’ 또는 ‘고향이 아닌 듯한 낯섦’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 인간의 의식이 독일에 있든, 일제 아래 있는 조선에 있든, 평화로운 조선에 있든, 흔들림 없이 철저히 ‘그 나라 사람(조선 사람)’임을 보여 줌으로써 정치·사회·문화적 난민이 아님을 미륵의 의식을 따라 보여준다. 한 민족은 그 자체로 자주적인 민족이며, 한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이라는 것을 ‘조선’과 ‘미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타자인 일본이 일본의 주변국을 타자화하여 아시아 열시관을 만들었다(나병철, 2001)고 볼 때 이미륵의 의식은 식민주의 ‘타자’에서 벗어나 ‘자아됨’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저항”이다.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이라면 이해하고도 남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끈끈한 사랑,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모습, 경쟁보다는 함께 잘되자는 생각으로 학업을 서로 돕는 친구들, 침략 당한 땅에서 침략자가 무력으로 짓밟아도 맨손으로 자주 독립을 외치는 모습과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지극히 한국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그가 보여주는 저항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이념이 있지 아니하다. 침략 세력에 따른 굴절된 자아관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아관을 형성하지도 않았다.

1950년 이미륵이 죽은 뒤 독일 문단에서는 “... 어느 저명한 잡지사의 통계에 따르면 1952년도에 독일 말로 발간된 서적 중 가장 훌륭한 독일어로

된 책은 우연히도 어느 외국인에 의하여 씌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이미륵이다.”(Flensburger Tageblatt, 1952. 7. 8.; 정규화, 1993: 102 재인용)라는 평을 얻게 된다. 이는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인간애’가 독일인에게 전달되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일 것이다.

* 본 논문은 2019.11.7. 투고되었으며, 2019.11.19. 심사가 시작되어 2019.12.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구텐베르크 박물관(2019), 최초의 인쇄활자 발명, 검색일자 2019. 11. 1., 사이트 주소 <http://www.gutenberg-museum.de>.
- 나병철(2001), 『근대 서사와 탈식민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 나병철(2005), 「한국문학과 탈식민」, 『상허학보』 14, 11-41.
- 민족문화연구소(2006), 『탈식민주의를 넘어서』, 서울: 소명출판.
- 박민수(2015),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23-41.
- 서준섭(2005), 「한국 근대 시인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 한용운, 임파, 김기림, 백석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13, 7-49.
- 송명희(2003), 「탈식민주의와 지역문학 연구 - 김정환·송기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9, 25-46.
- 우광훈·데이빗 레드먼(2017), 『직지코드(Dancing with Jikji)』, 한국: 아우라픽처스.
- 이규보(1958),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서울: 동국문화사.
- 이규보(1979), 『(고전국역총서 171) 국역 동국이상국집 VI』, 민족문화추진회(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이규보(2005), 『(이규보 작품집 2) 조물주에게 묻노라』, 김상훈·류희정(역), 서울: 보리.
- 이기문(1967), 『국어사개설』, 서울: 민중서관.
- 이기문(1977), 『국어사개설』, 서울: 민중서관.
-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서울: 태학사.
- 이석구(1997), 「식민주의 역사와 탈식민주의 담론」, 『외국문학』 50, 122-143.
- 임명진·유승·유인실(2012), 『한국 현대문학과 탈식민성』, 서울: 역락.
- 임선애(2012), 「옥시덴탈리즘의 역동성과 이산의 문제 -〈압록강은 흐른다〉의 경우」, 『한국사상과 문화』 62, 93-115.
- 임성규(2008), 「탈식민주의 시각에서의 소설 읽기 시론」, 『강원인문논총』 19, 31-56.
- 조동일(2008), 『한국학 고전 자료의 해와 번역 (현황과 과제)』,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정규화(1993), 「아름답고 매혹적인 동양정신」, 『교육개발』 8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규화·박균(2010), 『이미크 평전』, 서울: 범우.
- 허운희(2005), 「김수영 지우기 : 탈식민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상허학보』 14, 103-132.
- Bhabha, H. K. (2012),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역), 서울: 소명출판(원서출판 1994).
- Childs, P. & Williams, R. J. F. (2004), 『탈식민주의 이론』, 김문환(역), 서울: 문예출판사(원서출판 1997).
- Li, M. (1946), 『압록강은 흐른다』, 전해린(역), 서울: 홍익출판사(원서출판 1967).
- Li, M. (2008), 『압록강은 흐른다』 상·하, 정규화(역), 서울: 다림(원서출판 1950).
- Li, M. (2009), 『압록강은 흐른다』, 이옥용(역), 서울: 푸른책들(원서출판 1946).

- Li, M. (1950), *Der Yalu Fließt*, München: R. Piper & Co. Verlag.
- Li, M. (1974), 『무던이』, 정규화(역), 서울: 범우사.
- Li, M. (1977),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 정규화(역), 서울: 범우사.
- Li, M. (1984), *Der andere Dialekt*, Chung, K-H(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Li, M. (2000), 『이야기』, 정규화(역), 서울: 범우사.
- Li, M. (2017), 『압록강은 흐른다』, 박균(역), 파주: 살림(원서출판 1950).
- McLeod, J. (2003), 『탈식민주의 길잡이』, 박종성 외(역), 서울: 한울아카데미(원서출판 2000).
- Moore-Gilbert, B. (2001),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이경원(역), 서울: 한길사(원서출판 1997).
- Tyson, L. (2016), 『비평이론의 모든 것』, 윤동구(역), 서울: 엘피(원서출판 2006).
- Young, R. (2013), 『식민 욕망 : 이론, 문화, 인종의 혼종성』, 이경란·성정혜(역), 성남: 북코리아(원서출판 1995).

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읽은 『압록강은 흐른다』

진영희

이 연구는 식민주의 배경 아래 있었으나 식민주의 배경을 벗어나서 창작한 문학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를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근대로 들어선 시기에 식민주의 배경 아래 있던 당대 문인들과는 달리 식민의 경험을 이국 공간에서 창작하였기에 식민주의 배경을 식민주의 공간에서 그려낸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지식인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굴절된 서구화를 그려낼 때 이미 유럽의 중심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이끌던 독일이라는 공간에서 작품을 그려냈다. 한국의 탈식민에 관한 담론이 친일과 저항으로 나뉘는 때 이국 공간에서 그려낸 『압록강은 흐른다』에서는 한국은 억압당해도 되는 피지배자도 타자도 아닌 그 자체로 ‘주체’임을 드러내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민족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유럽인의 시각을 들추어 내어 작품 후반을 나즈막히 장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탈식민주의 관점을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에 한국인이 일깨우고 있었다는 데에 큰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탈식민주의, 탈식민주의 독법, 탈식민주의 관점,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ABSTRACT

Reading 『*Der Yalu Fliesst*』,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Jin Younghu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literary work, *The Yalu River Flows*, created under but beyond the background of colonialism, from the viewpoint of post-colonialism. As this experience of colonization was written about in a foreign country, unlike the works of other contemporary writers who were living under colonialism at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this novel has aspects different from those that described colonialism in the colonized nation. When most intellectuals described distorted Westernization through Japan, Li Mirok created work at the center of Europe, Germany, which had led World War II. While the discourse on post-colonialism in Korea is divided into pro-Japanese and anti-Japanese sides, *The Yalu River Flows* which was written in a foreign country, described Koreans as a valuable people trying to achieve peace. It insisted that Korea was neither a subordinate that deserved to be oppressed nor the other, but was itself, “a main agent”. This book reveals the Europeans’ viewpoint of treating people equally, and is significant because a Korean was enlightened about this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in the war-torn era.

KEYWORDS Post-Colonialism, Reading Post-Colonialism, Postcolonial Perspective, *Der Yalu Fliesst*, Li Mirok